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01.02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39.00원 (+9.20원)

KOSPI

4,214.17 (-6.39, -0.15%)

KOSDAQ

925.47 (-7.12, -0.76%)

국고채 10년 금리

3.385 (+0.031%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실전 퀀트(Quant MP) 1월 승률의 비밀, '저평가' [이경수]

해외 크레딧 '아폴로의 AI 신용 노출 축소'가 의미하는 것 [이영주]

기업분석

POSCO홀딩스 4Q25보다는 내년 실적 개선을 기대해보자 [박성봉]

Monthly

증권 12월 입종 Check [고연수]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삼성전기, KT, 대한항공, 금호석유화학, 풍산, 알테오젠, 현대무비кс, 가온칩스

하나증권



Quant

실전 퀀트(Quant MP)

1월 승률의 비밀, '저평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요약: 극심한 저평가 + 호실적 저평가에 집중

- 연초에는 극심한 저평가도 모멘텀, 밸류업 기대(현대제철, 롯데쇼핑)
- 연말 계절성 탈피, 실적주(고평가 제외)는 1월부터가 시작
(SK, 엔씨소프트, OCI홀딩스, 한온시스템, LG이노텍, HD현대증공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치주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매크로 환경의 변화: 금리 상승 압력과 가치주의 귀환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는 성장주 중심의 랠리에 제동을 거는 핵심 변수이다. 장기 금리의 상승은 성장주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높여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현금 흐름이 견고하고 장부가치 대비 저평가된 가치주에게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동력이 된다. 실제로 미국 가치주-성장주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이어졌던 성장주 우위의 국면이 2025년 말부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연말 계절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금리 상승 흐름과 맞물려 글로벌 자금은 다시금 '가격 메리트'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2. 팩터 성과의 동행성: 최근 한·미 시장의 저평가 팩터 반등

최근 미국과 한국 양국 시장 모두에서 저평가(Undervaluation) 팩터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반등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과열된 빅테크 비중을 줄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PER 종목군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한국 시장 역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와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그간 소외되었던 저평가 대형주들이 이익 리비전과 함께 팩터 스코어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3. 계절성(Seasonality): 1월 효과의 주인공, '저평가 팩터'

역사적으로 매년 1월은 저평가 팩터의 계절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통계적 근거로 지난 20년간 한국 시장의 1월 평균 팩터 성과를 분석하면, 가치(Value) 팩터의 초과 수익 확률은 다른 팩터(Momentum, Quality)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연초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 '안전마진'을 확보하려는 시장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4. 수급의 핵심: 2026년 '기관 장세'와 가치주의 만남

2026년 시장은 기관 투자자 중심의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 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실적 가시성'과 '가격 정당성'에 기반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초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포트폴리오 구축 시 변동성이 높은 고성장주보다는 밸류에이션 하단이 지지되는 가치주 팩터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1년 및 3년간 종목별 기관 순매수 강도와 팩터별 상관성 분석 결과).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Asset Allocation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염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 크레딧

‘아폴로의 AI 신용 노출 축소’가 의미하는 것

아폴로 조정에 대한 해석: 기술 논의 뒤에 숨겨진 신용 부담 재평가

AI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기술 경쟁력과 주가 흐름에 집중돼 있었다. 모델 성능, 반도체 수요, 빅테크의 Capex 계획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AI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와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술과 수요 외에 또 하나의 축이 중요해졌다. 바로 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신용의 속도와 조건이다.

AI 투자는 데이터센터, GPU, 전력, 클라우드로 이어지는 기본집약적 구조를 동반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은 별도의 논쟁 대상이라기보다는 성장의 전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장기 계약과 반복 매출 구조를 근거로, 과거 대비 높은 레버리지와 완화된 신용 조건이 정당화됐다. 다만 투자 규모와 집행 속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신용 전제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점차 부각됐다.

이런 맥락에서 Apollo Global Management가 최근 AI·기술 관련 신용 노출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결정은, AI 성장성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AI 성장을 전제로 형성돼 온 신용 구조와 레버리지에 대한 재평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폴로는 무엇을 조정했는가

아폴로의 판단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모대출 포트폴리오 내 소프트웨어·AI 연관 기업 대출 비중을 기존 약 20% 내외에서 단일 자릿수(10% 미만)로 축소하는 방침을 설정했다. 신규 딜 편입을 제한하는 한편, 만기 도래 및 상환을 통한 자연 감축을 병행했다.

둘째, 보험 계정 (Athene)을 포함한 장기 신용 포트폴리오에서는 AI·테크 연관 구조화 신용 (CLO 등) 익스포저를 중기적으로 약 50%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AI 비중이 높은 기초 자산 풀에 대해서는 신규 편입 기준을 강화했다.

셋째, 신규 AI·테크 관련 딜에 대해서는 집행 속도를 낮추고, LTV 및 EBITDA 멀티플 상단을 제한했으며, 현금 및 단기국채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AI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와 동일한 신용 조건으로는 더 이상 집행하지 않겠다는 기준 변화를 의미했다.

재평가의 대상은 AI가 아니라, AI를 전제로 누적된 신용 구조였다

아폴로의 이번 조정은 AI 수요나 기술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핵심은 AI 투자 확대 과정에서 허용돼 온 레버리지 수준과 신용 조건이 실제 현금흐름의 변동성과 비교해 과도해졌다고 본 데 있었다. 다시 말해, AI 성장이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설정된 신용 구조가 현재 국면에서는 충분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I·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기업들은 장기 계약과 반복 매출을 근거로 높은 EBITDA 멀티플과 LTV를 허용받아 왔다. 동시에 Cov-lite 확산으로 순차입금 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Analyst 이영주 leeyoungju@hanafn.com
선임연구원 하영민 hyeongmin.ha@hanafn.com

과 같은 전통적인 재무 트리거의 기능이 악화됐다. 이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되더라도 신용 위험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또한 동일한 AI 투자 흐름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 CLO, 보험 계정, 펀드 레벨 레버리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편입되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동일한 수요 둔화에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가 확대됐다. 이는 리스크가 분산된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채 중첩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off-balance 구조의 확산도 두드러졌다. 빅테크는 직접 차입 대신 SPV, 프로젝트 파이낸스, 장기 사용 계약을 통해 AI 인프라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채는 재무제표 밖으로 이동했다. 다만, 상환 재원은 여전히 동일한 AI 투자 수요와 현금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AI 투자 수요가 둔화될 경우 동시에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 기반의 신용이 시스템 외곽에 누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는 단일 기업 분석만으로는 시스템 전반의 신용 민감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아이러니가 담긴 선제적 방어 전략

아폴로의 AI 신용 노출 축소는 우선 자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방어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아폴로의 과거 이력을 함께 고려할 때, 단순한 보수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Apollo Global Management는 과거 Serta Simmons Bedding 사례 [11/6, 신용의 카나리아, 첫 경고음은 이미 울렸다 참고]에서처럼 cov-lite 환경에서 업티어링이라는 신용 재배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운용사이다. 그런 아폴로가 이제는 그 환경 자체에 대해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시사하는 바도 작지 않다.

다만 관건은 이러한 재평가가 아폴로에 국한될지, 아니면 다른 대형 사모대출 운용사들로 확산될지 여부에 있다. 유사한 비중 조정과 조건 강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AI 및 관련 벤처체인 전반에서 신용 공급 속도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 집행 지연이라는 부정적 파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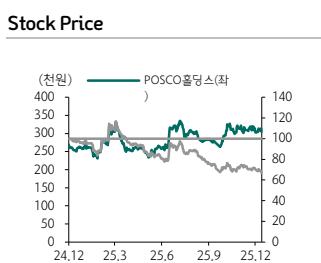
그럼에도 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신용 공급의 급격한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속도 조절이었다. 정책적 완충 장치와 유동성 지원, 그리고 빅테크의 재무 여력이 함께 작동한다면, 이번 재평가는 위기의 전조라기보다 과열을 식히는 조정 과정, 즉 소프트 랜딩으로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어 보인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740,000원
현재주가(12.30)	305,0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4,214.17
52주 최고/최저(원)	335,000/230,500
시가총액(십억원)	24,684.6
시가총액비중(%)	0.71
발행주식수(천주)	80,933.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4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5.3
외국인지분율(%)	28.80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8.09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5.63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69,835.3	73,359.2
영업이익(십억원)	2,328.7	3,417.3
순이익(십억원)	1,024.8	2,027.6
EPS(원)	13.384	24.030
BPS(원)	734,063	753,435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매출액	77,127.2	72,688.1	68,715.4
영업이익	3,531.4	2,173.6	2,218.7
세전이익	2,635.2	1,251.2	1,500.7
순이익	1,698.1	1,094.9	1,313.2
EPS	20.079	13.073	16,144
증감율	(44.92)	(34.89)	23.49
PER	24.88	19.39	18.89
PBR	0.75	0.37	0.43
EV/EBITDA	7.68	6.24	6.67
ROE	3.18	2.00	2.36
BPS	662,997	689,205	710,491
DPS	10,000	10,000	10,0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POSCO홀딩스 (005490)

4Q25보다는 내년 실적개선을 기대해보자

4분기 철강 스프레드 축소와 국내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부정적

2025년 4분기 POSCO홀딩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4조원(YoY -7.5%, QoQ -4.6%)과 4,043억원(YoY +323.9% QoQ -36.7%)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5,231억 원을 하회할 전망이다.

1) 전반적인 철강 내수 부진과 일부 공장 개보수 영향으로 4분기 POSCO의 철강 판매량은 800만톤(YoY -5.5%, QoQ -3.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3분기 철광석을 비롯한 원재료 스팟 가격이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과 동시에 4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POSCO의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는 전분기대비 1만원/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부진한 내수 영향으로 탄소강 ASP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에 그치면서 스프레드는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외 철강 자회사들의 경우 3분기와 유사한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국내 자회사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비용 반영 규모에 따라 3분기보다 더 큰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증권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분기부터 수익성 개선 전망

1분기 POSCO의 철강제품 판매는 814만톤(YoY -0.1%, QoQ +1.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기 중국 철광석 스팟 수입가격이 평균 톤당 103달러로 3분기대비 상승했고 현재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기 POSCO의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중국 및 일본산 열연 잠정판세 부과와 자동차 및 조선향 제품 가격 인상 전망을 감안하면 철강 스프레드는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국내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도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POSCO홀딩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6,210억원(YoY +9.2%, QoQ +53.6%)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740,000원 유지

POSCO홀딩스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740,000원을 유지한다. 수입산 철강 규제와 더불어 중국의 철강 생산 규제와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되는 고정투자 회복으로 2026년 철강 부문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리튬가격과 리튬공장 가동을 상승에 따른 2차전지 사업부 영업실적 개선도 기대된다.

Overweight

증권

12월 업종 Check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5년 12월 30일

키움증권(039490)

BUY | TP 370,000원 | CP 289,500원

삼성증권(016360)

BUY | TP 120,000원 | CP 75,400원

미래에셋증권(006800)

BUY | TP 26,000원 | CP 23,350원

NH투자증권(005940)

BUY | TP 29,000원 | CP 21,100원

한국금융지주(071050)

BUY | TP 200,000원 | CP 161,700원

12월 KRX 증권지수 1.8% 상승, KOSPI 수익률 5.7%p 하회

12월 KRX 증권지수는 1.8% 상승하며 KOSPI 수익률을 약 5.7%p 하회했다. 총당금 반영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익 감소 등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며, 커버리지 증권사 주가는 전반적으로 KOSPI 대비 부진했다. 다만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고, 발행어음/IMA 등 신사업 인가를 취득한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7.0%, 6.6% 상승하며 경쟁사 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을 시현했다.

12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MoM -13.2% 기록

12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33.0조원(KRX 25.9조원, NXT 7.1조원)으로 전월대비 13.2% 감소했다. 그러나 4분기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36.9조원(KRX 26.6조원, NXT 10.3조원)으로 전분기대비 43.0% 증가하며 분기 기준 성장세를 기록했다.

고객예탁금과 신용공여잔고는 각각 87.4조원, 52.2조원으로 전월대비 12.2%, 3.4% 증가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7.8조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2조원, 3.5조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 이후, **12월 마지막 주 개인 수급은 순매수로 전환했다.**

한편 12월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494억달러로 전월대비 10.2% 감소했으며, 해외주식 순매수대금은 17억달러로 전월대비 69.3% 감소했다. RIA 세제지원 발표 이후 개인 수급이 순매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포착됐으나, 이는 정책적 배경 외에도 연말 세금 대응 및 차익실현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본격 매수세 유입을 기대

2025년 국내외 주식 거래대금에서 해외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로 추산된다. 해외주식 마케팅 중단에 따라 거래규모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해외주식 수수료율이 국내주식 대비 약 두 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수수료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1)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고, 2) 발행어음/IMA 등 신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가 가능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국회와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월 중 정부안을 담은 통합 법안을 발의하고, 2~3월 경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STO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성장 동력을 확보한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29	117,000	119,900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하나금융지주 (086790.KS)	12/29	93,800	94,100	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주주친화적인 은행. 비은행 실적도 다소 개선 환율 우려가 과도하게 주가에 반영. 환율 하향안정화시 반등 속도 빠를 것으로 기대
삼성전기 (009150.KS)	12/29	259,000	255,000	-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KT (030200.KS)	12/29	53,400	52,60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매력적인 수준
대한항공 (003490.KS)	12/29	22,850	22,550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아시아나항공 합병 절차 완료로 장거리 노선 독점, 단거리 노선 과정적 지위 확보 환율 안정에 따른 투심 개선. PBR 0.7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금호석유화학 (011780.KS)	12/29	122,600	120,700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석유화학 시황에서 부타디엔과 MDI 가격 동반 강세 보이며 업황 개선 시그널 확인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및 지분법 이익(금호미쓰이화학) 기대
풍산 (103140.KS)	12/29	105,800	106,500	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5mm Capa 증설 (연 10만→20~25만발), 풍산 FNS 신관 증설 (연 9만→60만개) 기대 구리 가격의 견고한 흐름이 지속되며 신동 사업의 안정적 실적 기대
알테오젠 (196170.KQ)	12/29	439,000	449,500	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하주사 전환에 대한 니즈가 투약 편의성 개선, 바이오시밀러 방어의 이유로 증가 중 파트너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공장 증설에 따른 제품 수익 증가 기대
현대무벡스 (319400.KQ)	12/29	19,260	18,790	-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사업 확장 및 유지보수 매출 확대로 점진적 수익성 개선 전망 국내 기업향 에너지저장장치, 화장품, 가전 관련 물류 자동화 수주 기대
가온칩스 (399720.KQ)	12/29	55,000	51,700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DSP 업체들 전반에서 신규 수주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업황 회복 가시성 상승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래퍼런스를 보유한 만큼 향후 신규 수주 모멘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작년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78%	-2.83%p	+71.92%	+13.3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1/2	1,695,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수주 기반으로 5공장 안정적인 ramp-up, 1분기 초 6공장 증설 계획 발표 예상 1월 12~15일 개최되는 JPM healthcare에서 향후 사업전망 main track에서 발표 예정
KB금융 (105560.KS)	1/2	124,7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여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2026년에도 추정 순익 약 5.9조원 내외를 기록하며 종익 추세 굳건히 지속될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2	255,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2	330,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S, 26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여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KT (030200.KS)	1/2	52,6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매력적인 수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성 비용 부채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딱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2	161,7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자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2	83,0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2	96,4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한국단자 (025540.KS)	1/2	67,300	신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자동차용/전자용 커넥터를 기반으로 반도체용/ESS용/로봇용으로 확장 중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지난 분기(4Q)		작년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55%	-8.08%p	+59.70%	+1.0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805	2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590	3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540	1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6,585	7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프,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65.86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5.99	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국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9.26	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6.69	1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I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1월 광공업생산 (E --, 10월 -8.1%) ■ 미국 10월 FHFA 주택가 격지수 (E --, 9월 0.0%) ■ 미국 10월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E 0.1%, 9월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2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1월 2.4%/2.0%) ■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E --, 11월 49.2P) ■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 (E --, 11월 4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12월 수출/입 (E --/--, 11월 8.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F (E 49.2P, 11월 49.6P) 	
1.4	1.5	1.6	1.7	1.8	1.9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12월 S&P글로벌 제조업 PMI F (E --, 11월 49.7p) ■ 중국 12월 레이팅독 종합 PMI (E --, 11월 51.2p) ■ 중국 12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 11월 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E 48.4p, 11월 48.2p) ■ 미국 12월 ISM 구매물가 지수 (E --, 11월 58.5p) ■ 일본 12월 전년대비 분임 통화 (E --, 11월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ADP 취업자 변동 (E 5.5만건, 11월 -3.2만건) ■ 미국 주간 전주대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E --, -5.00%) ■ 유로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CPI (E --/--, 11월 2.10%, -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전주 --) ■ 미국 10월 전월대비 내구재 주문 F (E --, 9월 -2.20%) ■ 미국 10월 전월대비 제조업수주 (E -1.00%, 9월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12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 (E 6만건, 11월 6.4만건) ■ 중국 12월 전년대비 CPI (E --, 11월 0.70%) ■ 중국 12월 전년대비 PPI (E --, 11월 -2.20%)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알아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